

노인의 무료요양원 적응 척도 개발*

이 가 언¹⁾

1)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Scale Development of Free Nursing Home-Adjustment for the Elderly*

Lee, Ga Eon¹⁾

1)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of free nursing home adjustment for the elderly in Korea. **Method:** The developmental processes were construction of a conceptual framework, development of preliminary items, ver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twice data gathering, verification of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final items. The first 53 preliminary items were obtained through review of literatures about nursing home adjustment and in depth interviews with 5 staffs of nursing home. These items were reviewed by five specialists for content validity and 39 items were chosen. The first data was collected from 107 elderly residing in 3 nursing homes and the second survey was from 147 residents who were living in five nursing homes. Finally this data was analyzed for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Result:** There were 23 final items which were sorted into 5 factors. The factors were

identified as 'Relocation distress symptom'(8items), 'Making friends'(4items), 'Acceptance of new residence'(6items), 'Difficulty in group life'(3items), and 'Having self-worth'(2items). The cumulative percent of variance was 53.466%.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Cronbach's alpha was .837.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measuring nursing home adjustment of the elderly. However, for further validity and reliability, repeated researches are needed.

Key words : Nursing home, Social adjustment, Methodology research

서 론

우리나라 노인입소시설 거주자의 수가 1994년 2,721명에서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9,152명(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으로 약 3배 이상 증가되었다. 그 중 무료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수는 6,986명으로 시설거주자의 약 80%정도

주요어 : 시설노인, 적응, 척도개발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공모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Dong-A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05.

투고일: 2007년 4월 19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15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Ga Eon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1, 3ga, Dongdaesin, Seogu, Busan 602-714, Korea

Tel: 82-51-240-2885 Fax: 82-51-240-2947 E-mail: gelee@dau.ac.kr

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 등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건강문제를 지닌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불안, 혼돈, 불면, 식욕저하, 우울, 외로움, 무기력과 눈물 흘림(Barbara, 1995; Brooke, 1989; Lee, 2002; Osgood, 1992)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며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시도나 실제 자살(Kaisik & Ceslowitz, 1996)과 같은 부적응 양상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간호 인력들은 노인들의 입소 이후 적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사정하여 필요시 심층면담이나 중재로써, 시설 적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긍정적인 시설생활의 적응은 노인들이 시설에서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적응을 다룬 연구는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년기 또는 노후 생활 적응(Chi, 2001; Kang, 2003; Park, Jae, & Oh, 1996)이 대부분이며, 이들 연구에서 적응의 지표로 생활만족도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Lee와 Lee(2002), Youn과 Kim(1994)의 연구에서는 행복감과 우울감으로 측정하였다. 유료요양시설 노인의 입소 후 적응에 대한 연구(Shin, 2002)에서도 적응상태를 생활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노인시설의 적응상태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불안(Thomasma, Yeaworth, & McCabe, 1990)이나, 생활만족도(Kruzich, Clinton, & Kelber, 1992; Mosher-Ashley & Lemay, 2001), 삶의 질(Aller & Coeling, 1995; Harrington et al., 1999)과 활동수준 및 정서(Johnson, Stone, Altamaier, & Berdahl, 1998)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시설노인의 적응상태를 다룬 국내외 연구들에서 적응상태를 직접 측정하기 보다는 대부분 생활만족도나 정서적 상태 등으로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거주노인의 시설에 대한 적응 평가를 일반노인들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생활만족도 등으로 측정하는 것은 요양원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의 적응상태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들이 거주노인의 적응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응을 나타내는 노인들을 조기 발견하여 요양원 생활의 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들이 시설에서의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무료요양원 생활에 적응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개발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무료요양원 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작

성한다.

둘째,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최종 도구를 개발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무료요양시설에서의 적응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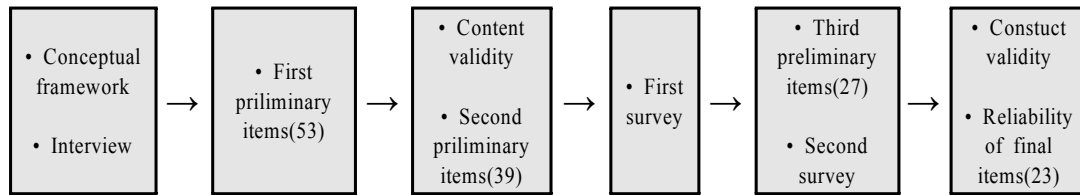
자료 수집은 연구절차에 따라 1, 2차 두 차례로 하였으며, 1차 조사의 연구대상자는 일 광역시에 소재하는 11개 무료 노인요양시설(Bu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2005) 중 임의 표출한 3개의 시설 거주자 총 107명이 해당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한 3개 시설을 제외한 8개 시설 중 시설장이 자료조사를 허락하지 않은 3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설의 거주자 1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시설장에게 연구의 목적, 조사 방법 및 질문지 내용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요양원 간호사가 의식이 명료하며 질문지 응답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지녔다고 판단한 자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조사 참여를 허락한 자를 대상으로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단, 조사 중 언제라도 조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자료 수집 중에 거부한 자는 제외하였다.

1차 자료 수집은 2006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하였으며, 2차 자료 수집은 동년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자기보고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수집시에는 노인들 중 문맹자가 많고 문항의 의미 파악의 어려움과 시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간호학과 학부생 5인이 노인과 일대일 면접으로 하였다. 노인 1인당 조사시간은 1차인 경우 약 7~10분, 2차인 경우에는 판별도를 파악하기 위한 우울 척도가 포함되어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입소 날짜 등 거주자에 대한 정보는 요양원장의 허락을 받아 시설내부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문항개발절차

노인의 시설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과 노인요양원 종사자와의 면담으로 노인의 요양원 적응상태에 대한 내



<Figure 1> Procedure of scale development

용을 수집하였다.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 적응상태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형성하였으며, 형성된 개념적 기틀은 네 개의 하부영역으로 나누었다. 면담에서 추출된 진술문을 참고로 각 영역마다 비슷한 비율로 항목을 할당하여 1차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무료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인과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거나 도구개발 경험이 있는 간호학자 3인의 총 5인을 대상으로 1차 예비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2차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차 예비문항으로 요양원 거주노인들을 대상으로 1차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문항 분석한 것과 문항별로 문구를 재 수정하여 3차 예비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2차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 자료는 구성 타당도를 검증한 후 최종문항을 채택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문항개발절차는 <Figure 1>과 같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구성타당도 검증은 요인분석, 판별력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최종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개념적 기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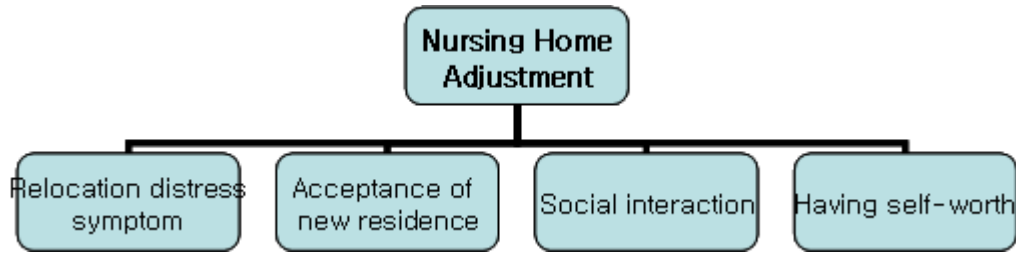
적응의 사전적 의미로는 첫째,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 잘 어울림, 둘째, (사람이) 자연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알맞게 그 습성이나 생활 방식이 변함(Lee, 1999)이라고 되어 있다. Min, Jo와 Lee(1993)는 적응(adjustment)을 유기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욕구를 만족시켜 나가는 행동과정이며 욕구의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 하였다.

노인들의 요양원 적응을 다룬 연구에서 요양원 적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Simms, Jones와 Yoder(1982)는 노인의

요양원 적응의 지표를 요양원에 대한 인식, 거주지 이전에 적응, 상호작용과 활동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의 네 가지로 보았다. Brooke(1987)는 요양원 입소자의 적응과정을 네 단계로 나타냈다. 첫 단계는 이탈감, 예민함, 포기감과 같은 것을 느끼는 혼란기이며 두번째 단계는 입소자들이 요구를 나타내고 요양원 생활을 결심하고 정당화하는 시기이다. 세번째 단계는 관계구축시기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맺으며, 갈등을 경험하고 특정 사람들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네번째 단계는 안정화시기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Wilson(1997)은 노인들의 요양원 생활로의 전환을 세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 단계는 당황하는 시기로서 정서적 반응기이며, 두번째는 부정적 정서를 내면화시키고 미래와 일상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는 적응기이다. 셋째는 수용기로서 시설 내 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를 만들기 시작하여 새로운 집에서 미래를 가지게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시설노인의 적응과정을 Lee(2002)는 세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째 입소 이후 부정적 정서적 반응 등으로 자신의 입소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하는 시기, 둘째 시설 생활을 수용하여 건강관리를 하거나 프로그램 참여나 주변동료와의 교제 등의 적응이나 부정적 정서 상태가 나타나 거부감을 다스리는 시기와 마지막으로 노인의 내면으로 거부감을 잠재화시키는 단계이다.

Thomasma 등(1990)은 노인들이 시설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살던 옛날 집과 현재의 새로운 집의 차이를 인식해야 하며, 옛집의 상실에 대한 슬픔, 새로운 집의 규칙을 아는 것과 새로운 규칙을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환경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Mosher-Ashlery와 Lemay(2001)는 시설생활 적응은 독립성의 감소, 다른 노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의 불편감, 이전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편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위의 문헌 고찰 결과 노인의 요양원 적응이란 '노인이 요양원 생활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영역은 이전에 살던 집, 가족, 친구 등을 떠나 요양원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서적 양상의 '거주지 이전 양상'이다. 둘째 영역은 시설에서의 생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인정과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nursing home adjustment

옛집을 떠나서 시설에서 살아야겠다는 의지 등이 포함되는 ‘새로운 거주지 수용’이다. 셋째 영역은 시설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등의 시설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넷째 영역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으로서 노인자신과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치롭다고 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등의 ‘자신의 존재 가치 지니기’라 볼 수 있다〈Figure 2〉.

1차 예비도구의 작성

문헌고찰을 토대로 문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일대도시 소재 3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인 간호사 3인, 사회복지사 2인, 총 5인을 대상으로 요양원 거주노인의 적응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질문은 ‘노인들이 요양원에 적응(부적응)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노인들이 이곳에서 적응하여 잘 산다는 것(잘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곳에서 잘 사는(잘 살지 못하는) 노인들은 어떤 특징을 나타냅니까? 등이다. 면담 결과 108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으나, 유사한 의미와 내용이 중복되는 진술문이 많아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문장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진술문은 수정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한 네 개의 영역에 각각 13~14개의 진술문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 53개의 1차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내용타당도 및 2차 예비도구의 작성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발된 1차 예비문항을 5인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전문가는 요양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2인과 도구개발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교수 3인으로 총 5인이 해당되었다〈Table 1〉. 타당성 점수는 내용분류표를 4점 척도로 구성하여 ‘매우 타당하다’ 4점, ‘타당하다’, 3점, ‘약간 타당하다’,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여백에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종 질문지에 대한 적합도 여부는 통계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에게 확인받았다.

53개의 1차 예비문항 중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가 3.0미만인 문항이 14개가 나왔다. 이들 문항 중에는 의미가 중복된다고 지적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외 시설노인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 등으로 윤리적 이슈가 제기되는 것도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53개 예비 문항 중 14문항을 제거하여 39문항의 2차 예비도구가 작성되었다. 이 도구는 건강문제가 있는 요양원 거주 노인들이 응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예’, ‘아니오’의 이분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양원 적응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차 조사시에는 총 107명으로서 남자 29.9%, 여자 70.1%였으며, 60대는 14.2%, 70대 41.5%, 80대는 39.6%, 90대는 4.7%였다. 교육정도는 무학이 66.6%, 초등졸(서당 포함) 13.3%, 중졸 6.7%, 고졸 10.5%와 대졸 이상이 2.9%였다. 종교는 불교 4.7%, 기독교 72.0%, 천주교 1.9%, 기타 0.9%, 없는 경우가 20.5%였다. 요양원 거주 기간은 12개월 이하 26.4%, 13개월~36개월 29.2%, 37개월~60개월 18.9%, 61개월 이상 25.5%였다. 2차 조사시에는 총 147명으로서 남자 25.9%, 여자 74.1%였으며, 60대는 12.5%, 70대는 40.3%, 80대는 40.3%, 90

〈Table 1〉 List of specialists

No	Sex	Institution	Degree	Position	Year of career(years)
1	Female	Nursing home	B.A	Head of department	8
2	Female	Nursing home	M.D	Director	13
3	Female	University	Ph.D	Professor	18
4	Female	University	Ph.D	Professor	21
5	Female	University	Ph.D	Professor	26

대는 6.9%였다. 교육은 무학 53.4%, 초등졸 24.0%, 중졸 10.3%, 고졸 11.6%, 대졸 이상이 0.7%였다. 종교는 불교 23.1%, 기독교 53.7%, 천주교 1.4%, 기타 1.4%, 없는 경우가 20.4%였다. 요양원 거주기간은 12개월 이하 21.2%, 13개월~36개월 48.6%, 37개월~60개월 15.1%, 61개월 이상 15.1%였다.

1차 자료 조사, 3차 예비도구 작성 및 2차 자료조사

39문항의 2차 예비도구로 1차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자신들의 인생과 관련된 문항인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한평생 후회스러운 것이 많다’, ‘나의 인생은 잘 풀리지 않았다’, ‘나는 하루하루가 즐겁다’, ‘나는 앞으로의 삶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의 5문항은 다수의 노인들이 응답을 회피하였기에 삭제하였다. 또한 문항분석 결과 이분척도임을 고려하여 각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관계 계수가 0.0에 가까운 ‘매일 자식(가족)들의 방문을 기다린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곳 노인들과 수준이 맞지 않다’, ‘이곳이 내가 살 마지막 집이다’ 4문항은 삭제하였다. 그 외 조사요원들이 자료수집과정에서 노인들에게 혼돈을 주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파악된 문항은 문구를 수정하였다. 따라서 2차 예비도구 39문항 중 9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30문항을 다시 간호학 교수 1인에게 의뢰하여

각 문항별로 비슷하거나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여 영역이 불분명한 문항은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7개 문항의 3차 예비도구를 작성하였다. 3차 예비도구는 개념적으로 상반된다고 고려된 우울 척도와 역상관성으로 구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판별력(Lee, Lim, & Park, 1998)을 조사하였다. 판별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Yesvage 등(1983)이 개발한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Jung 등(1997)이 국내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30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2차 조사시 함께 조사하였다.

3차 예비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 및 최종도구의 요인명명

27문항의 3차 예비도구로 2차 조사를 한 자료를 문항 분석한 결과, 역시 각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0.0에 가까운 문항인 ‘다른 노인들의 방에 놀러간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주변 정리 등)이 있는지 찾아본다’, ‘내 일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의 4문항은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23문항을 이론적 구성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를 확인한 결과 Kaiser-Meyer-Olkin .81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

<Table 2> Factor analysis & Cronbach's α of final items

(N=147)

Factor (No of items/ Cronbach's α)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s	Accumulative variance (%)
Relocation distress symptom(8/.838)	I often feel like crying.	.807	5.561	24.178
	I often think about my previous home and makes me sad.	.793		
	I often feel lonely.	.734		
	I often shed tears without reason.	.727		
	I am often displeased at trivial things.	.645		
	I am bored living here.	.608		
	It pains me to think about my children(family).	.542		
	I often feel angry.	.462		
Making friends (4/.646)	I have a close friend here.	.745	2.472	34.924
	I want to make friends.	.732		
	I try to help other residents.	.653		
	I am friendly with my roommates.	.518		
Acceptance of new residence(6/.709)	I have resolved to live here.	.867	1.563	41.720
	I wish to live well here.	.851		
	I am satisfied with living here.	.466		
	This is not my permanet home but just temporary residence.	.444		
	I don't want to live here although it's impossible to return home.	.382		
Difficulty in group life(3/.562)	My mind is at ease here.	.342	1.431	47.939
	It's difficult to get along with other residents.	.795		
	I am not friendly with other residents.	.745		
Having self-worth (2/.420)	I don't like to participate in group activities with others	.544	1.271	53.466
	My life has value to live in this world.	.610		
	Daily living gives no meaning to me	.539		

확률이 .000으로 나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시 요인추출은 주성분, 요인회전은 직접 오블리민으로 하였으며, 요인 수는 요인고유치, 스크리 도표와 요인 수 지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총 설명변량,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각 요인의 문항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요인의 구성은 요인고유치 1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인의 수가 과다 선정되어, 요인의 의미가 미미할 수 있기에, 연구자가 개념적 기틀 등을 토대로 예상되는 요인 수보다 몇 개 더 추출하여 최종결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Eom, 2001). 따라서 이를 참고로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한 '거주지 이전 양상', '새로운 거주지 수용', '사회적 상호작용' 및 '자신의 존재 가치 지니기'의 네 영역에 한 요인을 더 추가하여 5요인으로 요인 수를 지정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개념적 기틀과의 관련성, 총설명 변량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요인으로 판정되었다. 이 때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된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이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친구 만들기'와 '집단생활의 어려움'이라는 두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요인적재값은 .3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구조행렬보다 해석하기 용이한 패턴행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총 설명 변량은 53.466%였다<Table 2>.

첫째 요인은 요인고유치 5.561로서 '울고 싶을 때가 많다', '옛날 살던 곳이 자주 생각나서 서글프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등의 8문항으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 내용이었으며, 이 요인은 '거주지 이전 증상'이라고 하였다. 둘째 요인은 요인고유치 2.472로서 '이곳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와 같은 친구와 관련된 4항목으로 '친구 만들기'라고 하였다.

셋째 요인은 요인고유치 1.563으로 '이곳에서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있다', '이곳에서 잘 살고 싶다' 등의 6문항으로 시설을 새로운 거주지로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되었다고 보아 '새로운 거주지 수용'이라고 명명하였다. 넷째 요인은 요인고유치가 1.431로서 '다른 노인들에게 맞추면서 사는 것이 어렵다', '다른 노인들과 친하지 않다' 등의 다른 사람들과 집단 거주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3항목으로 '집단생활의 어려움'이라 하였다.

다섯째 요인은 요인고유치 1.271로 '나는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루하루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의 2항목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 '존재 가치 지니기'라고 명명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시된 적응 도구는 우울척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r = -.697(p = .000)$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나와 본 도구의 판별력이 확인되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depression scale

Nursing Home Adjustment	
Geriatric depression scale	-6.97(=.000)

최종도구의 신뢰도 검증

5개 요인 총 23문항의 내적 일치도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7이었다. 요인별로는 첫째 요인(거주지 이전 증상) .838, 둘째 요인(친구 만들기), .646, 셋째 요인(새로운 거주지 수용), .709, 넷째 요인(집단 생활의 어려움), .562, 다섯째 요인(존재 가치 지니기), .420로 나타났다<Table 2>.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원 거주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료요양원 적응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도구의 타당도는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로 검증하였으며,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하였다.

노인들의 요양원 적응과 관련된 문헌고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인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한 예비문항을 전문가 5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았으며, 또한 두 차례의 자료조사 와 세 차례에 걸친 예비도구 작성은 내용타당도 확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려된다. 구성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판별력으로 파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5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한 네 영역 중 셋째 영역인 타인과 상호작용에 대한 것은 '친구만들기'와 '집단생활의 어려움' 두 요인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 설명변량이 약 53%로서 60% 미만인 것은 제한점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설명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첫째 요인은 '거주지 이전 증상'으로서 8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문항은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김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Johnson 등(1998)의 연구에서 요양원의 성공적인 적응을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로 측정한 것과 상통한다고 본다. 또한 노인의 요양원 적응과정을 다룬 연구들(Brooke, 1987; Lee, 2002; Wilson, 1997)에서 입소 이후 첫 단계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정서적 반응기라고 보았기에 적응상태를 측정하는 요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요인은 '친구 만들기'로서 4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Lee(2002)와 Wilson(1997)의 연구에서 시설에 긍정적으로 적응한 노인들의 경우에 주변 노인들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된 것으로 역시 적응 현상에 꼭 필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요인은 요양원을 자신이 거주할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새로운 거주지 수용’으로서 6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Wilson(1997)과 Thomas 등(1990)의 연구에서 새로운 환경으로서 입소한 시설을 수용하는 것이 시설생활 적응에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넷째 요인은 ‘집단생활의 어려움’으로 3문항이 포함되었다. Brooke(1987)와 Mosher-Ashlery와 Lemay(2001)의 연구에서 시설생활 적응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하고 다른 노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의 불편감과 관련이 있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다섯째 요인은 ‘존재 가치 지니기’로서 2문항이 해당되며, 이는 자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Simms 등(1982)의 요양원 적응의 지표에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포함시킨 것과 Wilson(1997)의 요양원 적응기를 일상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제시한 것과 상통한다. 따라서 다섯 요인 모두 노인의 요양원 적응과 관련된 연구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문항 구성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단, 다섯째 요인의 문항 수는 최소한 3개의 변수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Eom, 2001)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제한점이 될 수 있어 추후 문항 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구의 판별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응상태의 개념적 기틀에서 부정적 정서상태를 극복하는 것과 상반되는 개념을 우울로 보아 우울척도와 역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r = -.697$ 로서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즉 적응정도가 높은 노인들의 경우에 우울정도가 낮아 본 도구의 판별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 도구의 신뢰도는 이분척도임을 고려할 때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가 .837로서 문항간 동질성이 매우 양호한 도구라고 볼 수 있으며, 요인별로는 .420에서 .838의 분포를 보였다. 단, 두 요인에서 신뢰계수가 .6이하로 나타난 것은 문항 수가 적기 때문으로 사려되기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원 노인의 적응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 것이기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질문지 응답시에는 장시간을 요하지 않으면서 노인들의 반응을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분척도로 제작한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요양원이라는 실무현장에서 간호인력들이 요양원 거주자의 적응 상태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노인간호학에서 시설거주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설 거주 노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무료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유료시설거주자에게 그 적용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는 총 설명변량과 신뢰계수가 낮은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의 시설 거주자에게 반복사용함으로써 도구의 유용성을 검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무료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적응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자료 수집은 일 대도시 요양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1, 2차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에는 107명, 2차에는 1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도구는 요양원 적응과 관련되는 연구를 고찰한 것과 시설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이 예비도구는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과정을 거쳐 정련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결과 5개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53.466%였다. 우울 척도와 의 상관계수는 $-.697$ 를 판별력이 높았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37로 나타나 이분척도임을 고려할 때,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도구는 노인들이 응답하기 용이하도록 ‘예’, ‘아니오’의 이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시간도 장시간을 요하지 않아 그 실용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요양원 거주자들의 적응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사려되기에 적응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높은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이나 거주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반복 측정함으로써 정련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유료 시설 거주자들에게 본 도구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ller, L. J., & Coeling, H. V. E. (1995). Quality of life: Its meaning to the long-term care resident. *J Gerontol Nurs*, 21(2), 20-25.
- Barbara, K. H. (1995). Suicide risk in frail elderly people relocated to nursing homes. *Geriatr Nurs*, 16, 104-107.
- Brooke, V. (1989). How elders adjust. *Geriatr Nurs*, 8, 66-68.
- Brooke, V. (1987). *Adjustment to living in a nursing home toward a nursing interv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Salt Lake City.
- Bu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2005). List of Busan Social Welfare facility. Web site: <http://www.bswin.net>.
- Chi, K. S. (2001). Relationships among the elderly's self-

- esteem and life-adjustment according to decision-making power in their family. *J Korean Living Science Assoc*, 10(1), 127-139.
- Eom, H. J. (2001). Methodological comparisons between principal component and common factor models: Use, misuse and abuse. *Korean J Measurement Eval Physic Educ Sport Science*, 3(1), 101-130.
- Harrington, C., Mullan, J., Woodruff, L. C., Burger, S. G., Carrillo, H., & Bedney, B. (1999). Stakeholders' opinions regarding important measures of nursing home quality for consumers. *Am J Med Qual*, 14(3), 124-132.
- Johnson, B. D., Stone, G. L., Altmaier, E. M., & Berdahl, L. D. (1998). The relationship of demographic factors, locus of control and self-efficacy to successful nursing home adjustment. *Gerontologist*, 38(2), 209-216.
- Jung, I. K., Kwak, D. I., Shin, D. K., Lee, M. S., Lee, H. S., & Kim, J. Y. (1997).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6(1), 103-112.
- Kaisik, B. H., & Ceslowitz, S. B. (1996). Easing the fear of nursing home placements: The value of stress inoculation. *Geriatr Nurs*, 17(4), 182-186.
- Kang, Y. J. (2003). How do Korean elderly women adapt to old age? Themes and sources of meaning in their later lives from life stories. *J Korean Home Econ Assoc*, 41(3), 131-146.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Number of Social Welfare Institute. Web site: <http://kosis.nso.go.kr/cgi-bin>
- Kruzich, J. M., Clinton, J. F., & Kelber, S. T. (1992). Person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nursing home satisfaction. *Gerontologist*, 32(3), 342-350.
- Lee, E. O., Lim, N. Y., & Park, H. A. (1998). *Statistical Analysis and Nursing Medical Research*. Seoul: Soomoon Publishing Company.
- Lee, G. E. (2002).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The Control of Reluctance. *J Korean Acad Nurs*, 32(5), 624-632.
- Lee, K. M. (1999). *New Korean Dictionary*(3rd version). Seoul: Doosan Corporation.
- Lee, S. S., & Lee, K. J. (2002). Th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J Korea Gerontol Soc*, 22(1), 1-20.
- Min, Y. S., Jo, E. S., & Lee, Y. H. (1993).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Sookmyung University press.
- Mosher-Ashley, P. M., & Lemay, E. P. (2001). Improving residents' life satisfaction. *Nurs Homes*, 50(5), 50-54.
- Osgood, N. J. (1992). Environmental factors in suicid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Suicide Life Threat Behav*, 22, 98-106.
- Park, K. R., Jae, M. K., & Oh, C. C. (1996). Comparative study of life adaptation of elderly according to the marital status. *Injenonchong*, 12(2), 637-656.
- Shin, S. Y. (2002). The study on the impact of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adjustment of relocation to a nursing home in the elderly. *J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Winter*, 111-129.
- Simms, L. M., Jones, S. J., & Yoder, K. K. (1982). Adjustment of older persons in nursing home. *J Gerontol Nurs*, 8(7), 383-386.
- Thomasma, M., Yeaworth, R. C., & McCabe, B. W. (1990). Moving day: relocation and anxiety in institutionalized elderly. *J Gerontol Nurs*, 16, 18-25.
- Wilson, S. A. (1997). The transition to nursing home life: A comparison of planned and unplanned admissions. *J Adv Nurs*, 26, 864-871.
-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 Von Otto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 Psychiatr Res*, 17, 37-49.
- Youn, H. H., & Kim, M. C. (1994). The stress, coping behavior and well-being of older adults. *J Korea Gerontol Soc*, 14(1), 17-32.